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은숙¹ · 서지민²

울산옥성초등학교 보건교사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²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Cho, Eun-Suk¹ · Seo, Ji-Min²

¹School Nurse, Okseong Elementary School, Ulsan,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Methods: The subjects were 127 boys and 132 girls in the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Parental Behavior Rating Scale, Conflict Tactics Scales, Self-Esteem Scales, and Index of Peer Relation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e risk group and normal group of the mental health state by the scores of CPSQ and were analyzed by χ^2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WIN 14.0. **Results:** The risk group was 70.3% and normal group was 29.7% of the subjects.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nterventions to improve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promot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Key Words : Children, Mental health, Self-esteem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학교 폭력, 왕따,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ang, Jang, & Jung, 2006). 보건복지가족부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초등학교생 4명 중 1명인 25.8%가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6), Min 등(1997)

의 정신건강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8.3%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 71.0%가 정신과 정밀검사에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아동기의 정신병리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larizi의 연구(Jang, 1988에 인용됨)에서 정신병리를 가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략 30%정도가 심각한 적응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의 정신병리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동,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eo, Ji-Mi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51, Fax: 82-51-510-8308, E-mail: seojimin@pusan.ac.kr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임.
- This study is a part of master's thesi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년 6월 2일 / 수정일 1차: 2010년 1월 30일, 2차: 2010년 3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5일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8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중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사례수의 비율이 1:20 정도가 되어야 예측검정력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Tabachnick과 Field(Yang, 2002에서 인용됨)의 견해를 근거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10개이므로 최소 200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해 280명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어머니로부터 총 266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7명의 아동이 질문지를 완성하지 못하여 최종 분석대상은 259명(92.5%)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11월 5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는 U광역시 교육청에서 분류한 4개의 급지에서 각각 2개교씩 총 8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각 학교의 5, 6학년 중 담임교사의 협조가 가능한 4개 반(학년별 2개 반)을 임의의 선정한 후,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남, 여 각각 4~5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해당 학교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교사가 자료수집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동,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담임교사로부터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연구참여동의서와 질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자발적 참여, 응답내용의 비밀보장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어머니를 통해 일반적 특성과 아동정신건강상태를 조

아동의 정신건강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대, 또래관계, 아동-교사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TV나 컴퓨터와 같은 매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Kang et al., 2006).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대는 아동의 성격 형성과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자아개념 형성과 높은 관련이 있는데(Kang et al., 2006), 적대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며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2007; Lee, M. J., 2001) 지속적인 학대 경험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3).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Ha, 2007; Kang et al., 2006), 낮은 학업 성적은 거부감, 고립감, 열등감 등의 원인이 되며, 이는 정신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 2007; Lim, 2001).

이상과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관련 요인 간의 단순한 관련성이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이나 상대적 설명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아동의 정신건강상태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양육태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사하였고, 아동에게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담임교사에게서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아동의 자료수집은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된 어머니의 질문지에서 결측치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아동에게 연구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수가 많고, 대상자가 초등학교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수집은 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째 날에는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둘째 날에는 양육태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문지 응답 시간은 20~25분이 소요되었다.

4. 연구도구

1) 정신건강상태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Heo 등(2003)이 개발한 '아동문제행동선별검사'(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CPS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내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 인지문제, 물질남용문제, 신체건강문제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고위험 아동들을 선별하는 일차 선별 도구로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부모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총점이 13점 이상이거나 내현화문제가 3점 이상 또는 외현화문제가 8점 이상일 때 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CPSQ의 도구개발 팀원 Kim과 전화통화, 2008. 4.)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없음' 0점에서 '아주 높음' 3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Heo 등(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2)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efer (1959)의 양육태도 척도를 기초로 하여 Oh (199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 양육태도 11문항과 애정·수용 대 적대·거부 양육태도 11

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자가보고형이며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0점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 3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자율적이고 애정·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통제적이고 적대·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Oh (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2,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 양육태도는 .72, 애정·수용 대 적대·거부 양육태도는 .81이었다.

3) 아동학대

아동학대 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학대정도를 각각 측정한 후, 두 점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하위영역은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을 포함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1979)의 Conflict Tactics Scales (CTS)를 Park (200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항의 예제와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생각하여 응답하는 자가보고형이고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도 없었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학대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의 언어사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Park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예제와 같은 얘기를 들은 경험 여부를 응답하는 자가보고형이고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도 없었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 학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방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rk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항의 예제와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생각하여 응답하는 자가보고형이고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도 없었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4)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 (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 (SES)를 Yang (2003)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기능이나 행동 또는 구체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가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5) 또래관계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 (1987)이 제작한 Index of Peer Relations (IPR)을 Song (199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가보고형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Song (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6)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Park (1999)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적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정서적 지원 .90, 정보적 지원 .84, 적대 .87이었다.

7) 학업성취도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2007학년도 2학기 기말평가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전체 평균 성적을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한 후 백분위수 서열을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상태 관련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상태 관련 요인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χ^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아동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아가 49.0%, 여아가 51.0%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형제 수는 2명이 70.3%, 3명이 22.4%, 1명이 7.3%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72.7%, 전문대졸 이상이 23.9%였으며, 가족 수입은 200~399만원이 60.6%, 400만원 이상이 23.2%, 199만원 이하가 16.2%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27 (49.0)
	Female	132 (51.0)
Number of siblings	1 [†]	19 (7.3)
	2	182 (70.3)
	3	58 (22.4)
Mo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9 (3.5)
	High school	188 (72.7)
	≥ College	62 (23.9)
Family income (10,000 won)	≤ 199	42 (16.2)
	200~399	157 (60.6)
	≥ 400	60 (23.2)

[†] It means one child.

2. 아동의 정신건강상태 관련 요인의 특성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총점 66점에 평균 40.04 ± 9.87 이었으며, 아동학대는 총점 230점에 평

균 57.92 ± 12.25 였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총점 70점에 평균 15.79 ± 2.52 , 언어학대는 총점 70점에 평균 16.92 ± 4.27 , 방임은 총점 90점에 평균 25.22 ± 9.51 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총점 50점에 평균 33.17 ± 7.11 이었고, 또래관계는 총점 125점에 평균 87.98 ± 19.32 이었다. 교사와의 관계는 총점 133점에 평균 97.41 ± 22.86 이었고, 학업성취도의 백분위수 서열은 총 99.99%에 평균 60.87 ± 41.51 이었다(Table 2).

3. 아동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의 총점이 13점 이상이거나 내현화문제가 3점 이상 또는 외현화문제가 8점 이상일 때 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건강상태의 총점이 13점 이상인 위험군은 48명(18.5%), 내현화문제가 3점 이상인 위험군은 22명(8.5%), 외현화문제가 8점 이상인 위험군은 7명(2.7%)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 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모두 77명(29.7%)로 나타났다(Table 3).

4. 정상군과 위험군 간의 일반적 특성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의 차이 비교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상태를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간에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성별($p=.249$), 형제 수($p=.115$), 어머니 학력($p=.438$), 가족수입의 차이($p=.55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상군이 위험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140, p<.001$). 위험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전체적으로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237, p=.002$) 위험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언어학대($t=3.085, p=.003$)와 방임($t=2.282, p=.023$)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이 위험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7.228, p<.001$)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t=-7.636, p<.001$)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t=-4.187, p<.001$)으로 나타났다. 위험군과 정상군 간에 교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631, p=.529$).

5.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양육태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related to Mental Health State of Subjects

(N=259)

Variables	M \pm SD	Actual range	Possible range
Child-rearing attitude	40.04 \pm 9.87	9~66	0~66
Autonomy vs. control	21.88 \pm 4.98	6~33	0~33
Love vs. hostility	18.17 \pm 5.94	0~33	0~33
Child abuse	57.92 \pm 12.25	46~114	46~230
Physical abuse	15.79 \pm 2.52	14~28	14~70
Verbal abuse	16.92 \pm 4.27	14~38	14~70
Neglect	25.22 \pm 9.51	18~70	18~90
Self-esteem	33.17 \pm 7.11	14~50	10~50
Peer relationship	87.98 \pm 19.32	30~125	25~125
Relationship with teacher	97.41 \pm 22.86	19~133	19~133
Emotional support	26.37 \pm 10.31	6~42	6~42
Informational support	32.14 \pm 7.73	6~42	6~42
Disclosure	38.89 \pm 9.83	7~49	7~49
Academic achievement (%)	60.87 \pm 41.51	0.01~99.9	0.00~99.9

성 검정인 Hosmer-Lemeshow 검정에서 p 값이 .525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형성된 회귀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3.9%였으며, 회귀모형의 정신건강상태의 정상군과

위험군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77.6%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 중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정상군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분석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1점 증가하면 정신건강상태가 정상일 확률이 1.096배 높아지고, 아동의 또래관계가 1점 증가하면 정신건강상태가 정상일 확률이 1.038배 높아지며, 학업성취도가 1 percentile 높아지면 정신건강상태가 정상일 확률이 1.010배 높아진다.

Table 3. Mental Health State of Risk Groups (N=77)

Variables	n (%)
Total score of mental health state	48 (18.5) [†]
Internalizing problems	22 (8.5) [‡]
Externalizing problems	7 (2.7) [§]

[†] Above 13 for total score of mental health state; [‡] above 3 for score of internalizing problems; [§] above 8 for score of externalizing problems.

Table 4.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Normal and Risk Groups

(N=259)

Variables	Categories	Normal group (n=182)	Risk group (n=77)	χ^2	p
		n (%)	n (%)		
Gender	Male	85 (46.7)	42 (54.5)	1.332	.249
	Female	97 (53.3)	35 (45.5)		
Number of siblings	1	17 (9.3)	2 (2.6)	7.417	.115
	2	126 (69.3)	56 (72.7)		
	3	39 (21.4)	19 (24.7)		
Mother's education	≤ High school	136 (74.7)	61 (79.2)	0.601	.438
	≥ College	46 (25.3)	16 (20.8)		
Family income (10,000 won)	< 300	138 (75.8)	61 (79.2)	0.351	.554
	≥ 300	44 (24.2)	16 (20.8)		

Table 5. Comparison of Mental Health related Variables between Normal and Risk Groups

(N=259)

Variables	Normal group (n=182)	Risk group (n=77)	t	p
	M ± SD	M ± SD		
Child-rearing attitude	41.76 ± 8.93	35.97 ± 10.81	-4.140	< .001
Autonomy vs. control	22.68 ± 4.46	19.97 ± 5.64	-4.117	< .001
Love vs. hostility	19.08 ± 5.73	16.00 ± 5.91	-3.919	< .001
Child abuse	56.39 ± 11.66	61.55 ± 12.93	3.237	.002
Physical abuse	15.69 ± 2.46	16.04 ± 2.66	1.347	.179
Verbal abuse	16.32 ± 3.72	18.31 ± 5.11	3.085	.003
Neglect	24.38 ± 9.36	27.19 ± 8.38	2.282	.023
Self-esteem	35.07 ± 6.41	28.69 ± 6.67	-7.228	< .001
Peer relationship	93.37 ± 17.67	75.23 ± 16.99	-7.636	< .001
Relationship with teacher	97.99 ± 22.66	96.02 ± 23.40	-0.631	.529
Emotional support	26.57 ± 10.02	25.92 ± 11.02	-0.459	.647
Informational support	32.25 ± 7.76	31.87 ± 7.70	-0.364	.716
Disclosure	39.17 ± 9.71	38.23 ± 10.14	-0.700	.485
Academic achievement (%)	67.91 ± 39.00	44.20 ± 42.72	-4.187	< .001

Table 6. Predictors on Mental Health State of Children

(N=259)

Predictors	B (SE)	Wald	p	OR [†] (95% CI)
Child-rearing attitude	.006 (.022)	0.073	.787	1.006 (0.964, 1.050)
Child abuse	.005 (.015)	0.099	.753	1.005 (0.976, 1.035)
Self-esteem	.092 (.030)	9.481	.002	1.096 (1.034, 1.163)
Peer relationship	.038 (.011)	11.938	.001	1.038 (1.016, 1.061)
Academic achievement	.010 (.004)	6.535	.011	1.010 (1.002, 1.017)

[†]OR: odds ratio (abnormal group=0, normal group=1); Hosmer and Lemeshow test: $\chi^2=7.105$, df=8, $p=.525$; Model summary: $R^2=.339$, $\chi^2=70.643$, df=5, $p<.001$; Correct classification (%): 77.6.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군 70.3%, 위험군 29.7%로 위험군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6)가 본 연구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 한 결과에서, 초등학교 4명 중 1명인 25.8%가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나타낸 결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Lee, M. S., 2001)에서 대상 아동의 20%가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결과와 Ha (2007)가 KGHQ-20문항(The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0 items)을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아동의 23.5%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고한 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국내의 아동 중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신병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최적의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는 평균 40.04 ± 9.87 점으로 중앙값(33.0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적 민주·자율적이고 애정·수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아동학대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언어학대와 신체학대 순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ng (2004)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

구에서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3.17 ± 7.11 점으로 중앙값(25.0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비교적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래관계의 평균은 87.98 ± 19.32 점, 교사와의 관계의 평균은 97.41 ± 22.86 점으로 역시 중앙값(62.5점, 66.5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또래 및 교사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상군이 위험군보다 유의하게 민주·자율적이고,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온정적이고 자율적일 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낮고 정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Lee, M. J., 2001)와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과잉보호적이고, 돌봄의 수준이 낮을 때 대인관계 갈등이 높고, 강박증, 우울증, 대인예민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Kim, 2007)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태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학대 경험은 위험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아동이 경미한 학대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Jung, 2003)와 유사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한 후 25~35%가 학대 부모가 될 수 있으므로(Kaufman & Zigler, 1987)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학대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치

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군의 자아존중감이 위험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Baek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미 형성된 자아존중감도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Moon, 1991), 자아존중감이 낮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관계는 정상군이 위험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정상군이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가 부정적이면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Ha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급 내에서 인기가 있는 아동들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칭찬하기,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인정하기 등과 같이 친밀하고 사교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에 인기가 없는 아동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Jang, 2006). 이러한 문제행동은 또래와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이는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도는 정상군이 위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동은 학급에서 소외, 거부, 고립, 열등감 등을 경험하여 정신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Ha, 2007). Lim (2001)은 정신건강상태는 학업성취 결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대인예민성, 적대감, 강박증, 불안, 공포불안의 정신건강의 하위 요인들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업성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다양한 능력과 개인차를 인정하고 내적 성취 의욕을 높여 스스로 과업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았고, 심리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Ha, 2007) 이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학업성취도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문제가 또래관계 및 학업능력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Wille, Bettge, Ravens-Sieberger, & BELLA Study Group, 2008)와 자아존중감을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Kim,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와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Kim,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존중감 형성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아동 주변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의 정도,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에 의해 형성 발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타인이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Song (1998)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고 보고되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 127명과 여아 13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상관관계연구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자율적이고 애정·수용적으로 인지하고 부모로부터 아주 경미한 학대를 경험하며 비교적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또래와 교사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할 때 70.3%가 정상군, 29.7%가 위험군으로 평

가되었다.

셋째, 정상군과 위험군 간에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신건강의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높게 나타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건강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아동의 정신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시 어머니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에서 결측값이 없는 어머니의 아동을 선정하고 대상 아동이 보건실에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재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 이외에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CPSQ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는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을 선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신건강상태를 정밀하게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보다 정밀한 진단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U광역시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5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보다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ek, C. H. (2006). *The effect of child-rearing and child respect of a mother on the child'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Ha, Y. S. (2007). *Mental health statu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Heo, Y. S., Ahn, D. H., Choi, J. H., Kang, J. Y., Kim, Y. Y., & Oh, K. J. (2003). Development of a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test.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42(6), 724-734.
- Hudson, W. W., Corcoran, K., & Fischer, J. (1987).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New York, NY: Free Press.
- Jang, J. S. (2006). *The relation between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ole of self-efficacy as a media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Jang, Y. J. (1988).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childhood mental health. *J Seoul Woman's University*, 17, 57-79.
- Jang, Y. M. (2004). *A study on child abuse: Focusing on the improving measures for child protection serv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Jung, Y. S. (2003). *The effects on child's mental health of spouse violence and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Kang, M. H., Jang, Y. J., & Jung, J. O. (2006). *Child mental health*. Seoul: Jungminsa.
- Kauf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 *Am J Orthopsychiatry*, 57(2), 186-192.
- Kim, J. Y. (2003). *The effect of child'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elf-esteem on child's behavioral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M. H.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nursing attitude recognized by children on their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Gwangju.
- Kim, M. R. (2005). Relationships among learner's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home environment, and academic achievements in the elementary school. *CNU J Educ Stud*, 26(1), 67-97.
- Kim, U. C., & Park, Y. S. (1999).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 of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friends, family, and school. *J Educ Psychol*, 13(1), 99-142.
- Lee, M. J. (2001).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school condi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 through medium change factor: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M. S. (2001). *A study of mental health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Lim, K. H. (2001). Analytic study on student's mental health. *J Res Educ*, 14, 1-23.
- Min, S. K., Kim, H. J., Oh, K. J., Lee, H. R., Kim, J. H., Shin, E. J., et al. (1997). Model development of school mental health service: A school-based study on the emotional and

- behavioral problems of elementary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36(5), 812-825.
-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2006). *Mental health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 Moon, S. J. (1991). *The effect of Reasoner's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on teenage self-esteem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Oh, E. S. (1997). *A structure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M. K. (2000).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 abuse on child's aggression: Centering on the marital conflict reported by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 Abnorm Soc Psychology*, 59(2), 226-235.
- Song, I. S. (1998). *Human mind and self-concept*. Seoul: Yangseowon.
- Song, S. J. (1999).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self-esteem of the gif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ial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 Marriage Fam*, 41, 75-88.
- Wille, N., Bettge, S., Ravens-Sieberer, U., & The BELLA Study Group (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children'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Results of the BELLA study. *Eur Child Adolesc Psychiatry*, 17, 133-147.
- Yang, B. W. (2002). *Understanding and using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Hakjisa.
- Yang, M. O. (2003). *The immersion in computer gam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